

이 문득하고 屋蓋全體가 重厚한 感覺을 주는 裝飾部分이 더 있으므로 因함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同手法인 屋身石이 이 위에 쌓여져 있는데 第一層屋蓋石과 第五層屋蓋石은 各各 轉角이 一개씩 破損되었다. 대체로 이 塔은 羅塔에서 보는 바와 같은 雄大莊重한 點은 없고 纖細하고 雅淡하며 均衡잡힌 塔이라는 印象을 준다.

屋蓋石과 屋身이 한물로 된 點落水面이 曲線을 이룬것 基壇樣式 屋蓋 추너에 帳幕을 刻出하는 등의 諸點으로 미루어 高麗塔으로 推定된다. 特히 屋蓋에 帳幕을 마련함은 일찌기 智光國師玄妙塔에서 본바로 『페루사』系統의 影響을 받은 듯한 玄妙塔의 手法과 恰似한 點도 있어 玄妙塔의 年代가 宣宗二年(A, D 一〇八五)라고 한다면 그보다 過히 떨어져 지 않는 時代의 作品으로 보고자 한다. 此은나 麗代에 들어 浮屠藝術의 高度로 發達되면서 塔表面裝飾에 汲汲하던 時期의 塔婆研究에 좋은 資料가 된다고 믿어진다. 原所在地를 仔細히 調査하여 본다면 缺失部分이 나올런지도 모르겠다. 아쉬운 마음을 가지게 됨도 이 塔에 對한 未練만 이 아닐 것이다.

註 ① 一九六四年一月二十八日 경향신문, 동아일보 參照
 ② 慶北漆谷郡 北三面崇島洞 山一에는 寶物二五一號인 大覺國師碑 (高麗仁宗十年壬子 一一三三年)가 서있으므로 보아 僊鳳寺址가 틀림없다.

實測值(單位 cm)

基壇部	高	幅	隅柱幅	甲石長	甲石厚
	四五·五六二·五四·五	九三·二	六·八		
塔身部	塔身石高	屋身高	身幅	隅柱幅	屋蓋長
(屋蓋石高)					
第一層	二九·〇	三四·五	四·八	六一·五	
二	二八·〇	四·八	三〇·〇	四〇·〇	五七·〇
三	二五·〇	三·七	二五·八	三三·六	五一·三
四	二三·〇	三·四	二三·七	三三·三	四七·二

相輪部	高	幅
一石	一〇·五	
二石	一〇·〇	一八·〇 塔全高三七·六
三石	六·〇	一九·〇
五	一九·〇	二·五 一九·六 二·七 四二·二
六	一八·〇	二·三 一六·五 二·六 三八·〇
七		一·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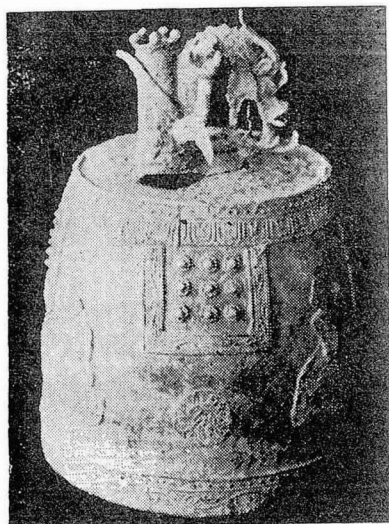
龍仁出土 梵鍾과 飯子

鄭 良 謨

近年 古鐵探知機로 許多한 文化財가 被害를 입고 있거니와 여기 紹介하는 二點의 一括遺物도 古鐵蒐集者인 卞희수씨가 지난 四月二十日 京畿道 龍仁郡 水枝面 豐德川里에서 古鐵蒐集中 캐내어 申告하여 國立博物館에 所藏케된 것이다.

一、梵鍾

高麗後期梵鍾의 一般樣式을 갖추고 있는 小鍾으로 鍾頭는 龍鈕와 甬筒으로 맺어졌고 鍾身에는 上·下帶와 乳廓·飛天·撞座 등이 陽鑄되어 있다. 鍾頭의 龍鈕는 甬筒보다 若干 높고 (龍背와 右



足・龍角) 右足(四爪)은 높이 들어如意珠를 받들고 있는데如意珠에는相通하는 五個의 구멍이 뚫려 있다. 다시 兩足部에서 火炎形이 솟아나와 甬筒을 슬쩍잡고 위로 올라 있으며 끝이 약간씩 벌어졌다. 甬筒의 上緣에는 五顆의 珠形이 달려 있으며 筒身에는 二條의 陽鑄帶緣이 三列橫으로 둘러있고 內空이며 鍾身과 貫通되어 있다. 鍾身은 위가 평편하고 比較的 扁平하게 생겼다. 여기 上帶는 肩部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連珠文과 이것과 下接해 있는 複連珠文(연단內에 二個의 連珠文이 있는 帶로 되어 있고 下帶는 連珠文이 있고 그 밑에는 上帶와 달리 唐草文帶가 있어 이들이 下帶를 이루고 있다. 乳廓은 上帶와 接해서 四個處에 있고 周圍는 唐草文으로 둘러있고 안에 九乳가 있다. 飛天은 무릎을 꿇고 合掌한 듯 하여 上院寺의 銅鍾飛天의 자세와 비슷한 것 같으나 彫刻과 鑄術의 稚拙로 樂器를 들었는지는 不明이며 鍾腹 乳廓의 間地 四個處에 配하였다. 撞座는 圓形蓮花文(中房에 蓮瓣表示)으로 유곽 바로 밑에 하나씩 四個를 配하여 飛天과 交互로 놓여 있다. 大體로 保存狀態는 良好하나 鍾頭와 鍾身의 接屬部가 造成後 깨어져서 後에 수리한 것 같으며 안팎에 떨어진 것이 그대로 붙어 있고 균열과 파손공이 數個處로 그대로 남아 있다.

以上 簡略히 紹介하였거니와 龍鈕部分과 鍾身의 各部位配置에서 各文樣의 되화 치출함이 있고 鍾身 肩部 周緣의 立華形이 없어지고 있으나 配置가 홀로러지지 아니하고 있는 點 등으로 보아 麗末十四世紀의 作品이 아닌가 생각한다. 總高三〇・〇cm 甬筒高八・九cm 龍高角一〇・〇cm 鍾身高二〇・〇cm 口徑二〇・三cm 두께一・三cm 肩幅一六・三cm

二、飯子

飯子亦 後期의 一般樣式을 지니고 있는 鉦鼓形으로 鼓面은 片面이며 그 裏面에는 短緣이 內付되고 口緣엔 二條의 圓帶가 둘러있다. 彫飾은 陽鑄로 鼓面(表)을 內外區로 나누어 그 中間에 같은 굵기의 同心三條線을 둘러 區分하였다. 外區의 周緣은 모서리가 되는 一條線을 除外하고 一條線을 둘러었으며 이 兩帶線 사이에 主文樣인 退化된 唐草文을 둘러었다. 內區는 하나의 蓮花文이나 重蓮瓣을 나타내고 그 中房의 蓮瓣을 같은

굵기의 同心三條帶線으로 싸고 있어서 全面을 三區分한 것 같이 보인다. 側面엔 鼓面으로 向한 周緣에 一條帶線이 있고 裏面으로 向한 쪽에 주조시에 생긴 듯한 단층이 나타나 있으며 飯子를 달기 위한 參個의 耳가 붙어 있다. 裏面의 모든 前面같이 모서리 아니고 둥구스름하여 外周로 一條帶線이 있다. 前者와 같이 文樣等의 退化稚拙함이 있고 側面의 귀가 하나 더 붙은 것이 있으며 太細線이 같은 굵기로 되고 側面의 中央線들이 없으나 後期一般樣式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 梵鍾과 같은 年代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表面徑三三・四cm 裏面口徑一三・三cm 側面幅八・二cm

葆華閣 所藏 「龍龕手鑑」에 對하여

崔 完 秀

지난해(一九六六 A.D.) 四月부터 葆華閣에 收藏된 故 澗松 全鑑弼 先生의 蒐集 遺物 및 藏書의 整理作業을 進行하여 오는중에 藏書部分에서 單도 적지 않은 稀貴本과 珍本들을 가려 내었다. 여기에는 「龍龕手鑑」全帙八卷七冊도 그 中의 하나이니 이에 對한 一考로 斯界에 一資를 供하고자 한다.

中國의 南北朝時 代로부터 始作한 佛經의 漢譯作業은 唐代 前半期에 一段落을 짓게 되었다. 그런데 表音文字인 梵文을 表意文字인 漢文으로 翻譯하므로써 漢譯經이 正確하

